

## 청소년 희곡 읽고, 나만의 연극에 대한 정의 내리기

작성자	내용
1.방준영	<p>내가 생각하는 연극은 '소통 가능한 생활의 연장선'이다. 그 이유는 영화는 카메라와 화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용을 비롯한 여러가지가 전달이 되지만 연극은 우리의 눈 앞에서 생생하게 전달 되고 공감대를 많이 형성할 수 있으며 관객의 리액션으로 관객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통 가능한 생활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p> <p>내가 생각하는 연극의 정의는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동화'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배우들이 연기를 통해서 극본 인물의 행동, 말, 성격 등을 우리에게 한 장면의 동화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무대에 서는 연극 배우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선생님 같은 느낌이다.</p>
2.박시현	<p>제가 생각하는 연극에 대한 정의는 여러 배우들이 다른 사람의 앞에서 각본이나 대본에 쓰여진 대로 몸짓, 말, 표정 등으로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본을 보면 대부분 대사와 그에 어울리는 몸짓, 표정 같은 몸짓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암기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p>
3.이보나	<p>제가 생각하는 연극이란, 떨림인 것 같습니다. 무대를 올리는 배우들도 무대를 보려고 하는 관객들도 아무 떨림 없이 연기를 하려고 하거나 아무 떨림 없이 무대를 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신 작품들을 읽고 내용만으로 연극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보려고 했지만 막막하여 그냥 막연히 연극을 떠올리니 연극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연극을 시작할 때 느껴지는 떨림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연극이란, 떨림인 것 같습니다.</p>
4.정아인	<p>사회에서 말하는 그 '상식'적으로, 먼지 회오리의 학생들을 '옳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려는 듯 사회에 물들여진 선생님이 나와 그들이, 정연이가 '하늘'을 바라보려는 것을 막지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어쩌면 사춘기에 청소년들이 뻘떨어지는 건 이것 때문인지도 몰라요. 날개로 하늘을 향해 날아가야 할 청소년들 이라는 새에게 자신들이 당하기도 했던 '윙컷'을 해서 새장에 가두어버리는 '사회'의 이들 때문에. 한번도 하늘을 날아보지 못하였으니, 몇몇이 뻘떨어지는 건 당연한게 아닐까요? 하늘이 어떤것인지를 모르는 이들이 하늘인 것과 그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해야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것인데, 그리 못하게 하니 하늘을 보긴 커녕 방향만을 하는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 하늘을 날기를 원하는 사회는 또 무슨 심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p> <p>연극이란, 하늘을 날게는 못해주지만 적어도 하늘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그런게 아닐까요? 그 이후는 관객들의 선택이지만요. 연극을 본 후, 그저 평소대로 다시 사회에 녹아들거나 의미를 알지는 못하게 그저 재미로만 보는 이들이 대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그 많은 관객들 중 한명이라도 하늘을 보게 되어 새장에서 벗어나 날아오른다면, 그건 정말로 '연극'이 아닐까요? 연극은 고정관념을 깰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든 시나리오로 쓰면 할 수 있는게 연극이잖아요. 연극은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도, 관객에게도 하늘을 보여주는게 연극이 아닐까요?</p> <p>아, 이 표현은 좀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연극은 날지 못하게 된 청소년에게, 또 날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게끔, 다시 날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연극이라고 전 생각합니다.</p>

작성자	내용
5.류진하	내가 생각하는 연극이 사람 같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연극도 어떤 사람에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존재가 된다. 또, 연극도 사람처럼 변한다. 사람도 성격이 변하는 것처럼 연극도 장르가 변하고, 그 연극을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도 달라진다.
6.박재윤	나에게 연극은 작가가 만든 다른 환경과 다른 설정과 다른 사람들 속에서 배우가 다른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감독이 연출한 대로 보여주는 '시간'이다. 영화나 드라마랑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영화나 드라마는 작가, 배우, 연출이 만든 것을 보여주는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연극은 그것들을 보여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조현진	제가 생각하는 연극은 독창성입니다. 아무리 연극이 우리의 삶 또는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저는 연극에는 그 한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극에서는 어떤 장소에 서 있는지 말을 안 해도 배우의 시점과 행동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작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느낌의 작품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사 하나마저도 여러 명의 사람에게 전부 다른 해석이 탄생할 수 있어서 더욱 풍족하고 재미있게 연극에 빠져들 수 있고, 한 역할을 하더라도 다른 캐릭터가 나올 수 있기에 더 흥미롭게 연극에 빠져들 수 있어서 연극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8.이보영	제가 생각하는 연극은 하나의 작은 예술작품 같다. 왜냐하면, 내용이 엄청 길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9.이보라	연극이란 커피같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맛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씹쓸한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콤한 맛을 더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커피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맛이 다양합니다. 연극을 볼 때도 공감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연극을 볼 때 감정이나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